

Thematic Radar

Ep. 22 인도: 금리인하 효과와 무역 합의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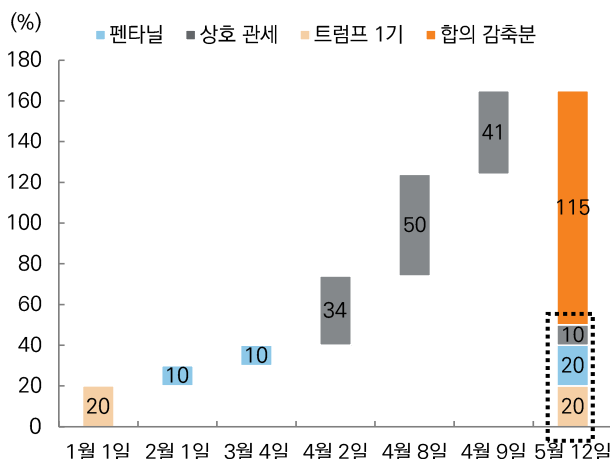
- 미국과는 달리 인도 금리인하 지속. 금리인하로 인한 내수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
- 인도 시장은 금리인하 효과 외에 빠른 무역 합의로 인한 불확실성 해소 및 미중 갈등의 반사 수혜도 가능
- 외국인 투자심리도 4월 이후로 회복 중. 인도 주식 시장으로의 FPI는 5월에만 약 2조 루피 순유입을 기록

지난 6일 인도중앙은행(RBI)은 기준금리를 6.0%에서 5.5%로 0.5%p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25년 들어 세 번째 금리인하이며 4개월 만에 1%p의 인하가 단행됐다. 반면 연준은 작년 12월에 25bp 인하 이후 동결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은 관세 부과 여파로 인해 소비자들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해 금리인하를 단행하기에는 부담스러운 환경이다. 미국과는 달리 인도는 금리인하로 인한 내수 부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인도 시장은 금리인하 효과와 더불어 무역 합의로 인한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인도는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진도가 빠른 편이다. 이미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축소하고 공급망 통합 등의 내용을 담은 협상 로드맵이 확정된 상태로, 농산품이나 데이터 관련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지만 이르면 6월 중순까지는 핵심 부분 입장차를 대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미국과 인도 무역 관계자들은 6월 5일부터 인도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중국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도 인도에는 유리하다. 중국을 대신할 제조업 허브로서의 역할이 더욱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3~50% 정도의 대중 관세율이 남아 있어 미중 관계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점도 인도 증시에 구조적 장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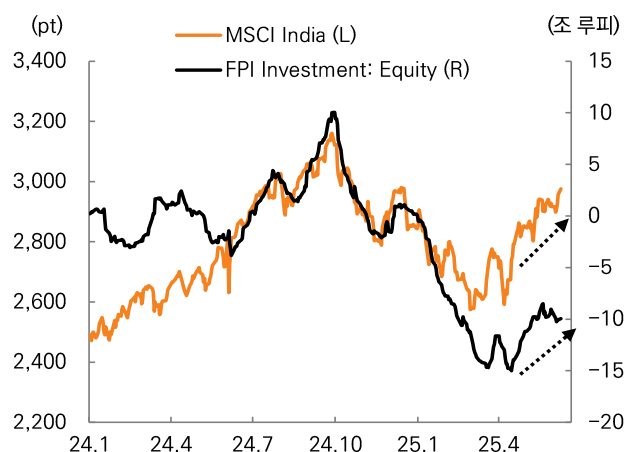
올해 초 강달러 기조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 큰 폭으로 위축되었던 외국인 투자심리도 4월부터 뚜렷하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외국인 투자심리 완화는 인도 FPI(Foreign Portfolio Investment) 투자 추이에서도 드러난다. 작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왔던 순 FPI 투자는 4월 이후 다시 순유입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인도 주식에 대한 FPI 투자는 1~3월 3개월 간 총 11조 6,574억 루피가 순유출 되었으나 4월 들어 +4,223억 루피가 순유입 되며 추세가 전환되었고 5월 한 달에만 1조 9,860억 루피가 유입되었다. 이러한 외국인 자금 유입세는 인도 주식 시장 상승세를 지지해 줄 전망이다.

그림 1. 2025년 미국의 대중 관세율 변화



자료: PIIE, FT,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인도 증시와 FPI 투자 추이



자료: CEIC,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